

새벽 5시, 어머니의 방에서 낮은 장단 소리가 새어 나온다. 알람도 없이 30년째 이어져 온 이 소리는, 몸이 완전히 깨기도 전에 손끝부터 가락을 기억해내는 어머니만의 의식이다. 칠순의 어머니는 오늘도 뿡과리를 챙겨 마을회관으로 향한다. 어머니는 이 지역 농악단의 30년 차 상쇠, 풍물패의 가락을 이끄는 우두머리다.

30년 전, 어머니가 상쇠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마을 어른들은 웃었다. “상쇠는 남자가 하는 거야. 기 세고 목청 큰 사내들이나 앞장서는 자리지, 여자가 무슨 상쇠냐.” 그 시절 풍물패에서 여자들의 자리는 대개 소고나 채상모, 잘해야 장구까지였다. 뿡과리를 쥐고 전체 가락을 이끄는 상쇠 자리는 암묵적으로 남자들의 것이었다.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, 대신 그해 겨울 내내 혼자 마당에서 뿡과리를 쳤다. 손바닥이 갈라지고 손마디가 붓도록 두드렸다.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홀로 울리던 그 쇳소리를,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.

첫 공식 무대는 이듬해 정월 대보름이었다. 어머니가 상쇠 자리에 서자 마을 남자들 몇몇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. “여자가 앞장서면 가락이 흔들린다”는 말이 뒤에서 들렸다. 하지만 어머니의 뿡과리가 첫 박을 울리자, 흩어져 있던 소고와 장구, 징 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. 가락이 끝났을 때,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들이었다. 그날 이후 아무도 어머니의 자리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.

10년 전 겨울,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셨다. 신체 좌측이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, 우리 가족 모두 어머니의 상쇠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. 의사는 왼손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. 뿡과리는 두 손으로 치는 악기다. 왼손으로 채를 쥐고 리듬을 받쳐야 오른손이 자유롭게 가락을 놓을 수 있다. 이웃들도 “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”고 했다.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이불 위로 오른손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며 가락을 세곤 하셨다.

퇴원한 지 석 달 만에, 어머니는 성한 오른손만으로 뿡과리를 다시 잡았다. 왼손은 채 대신 어깨 끈에 의지해 악기를 몸에 고정시키고, 오른손 하나로 모든 박자를 만들어냈다. 처음엔 소리가 자꾸 끊겼다. “가락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치는 거다.” 어머니는 그렇게 되뇌며 매일 새벽 마당에서 연습했다. 서툴게 울리던 첫 박자가, 반년 뒤에는 다시 마을 전체를 이끄는 상쇠가락이 되었다.

지금 어머니의 오른손 손마디는 남들보다 유난히 굵고 굵어 있다. 30년간 쇳소리를 두드리 온 흔적이자, 마비된 몸으로도 손을 놓지 않은 시간의 증거다. 몇 해 전부터 어머니는 마을 여자아이들 몇몇에게 상쇠 가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. 처음엔 다들 소고나 채상모를 배우고 싶어 왔다가, 어머니의 뿡과리 소리에 이끌려 상쇠를 배우겠다고 나선다. “상쇠는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.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장단을 지키는 사람이 상쇠다.”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채를 쥐어주며 하는 말이다. 그 말을 들을 때마다, ‘남자의 자리’라 불리던 것이 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‘끈기의 자리’였다는 걸 깨닫는다.

올해도 정월 대보름, 어머니는 뿡과리를 들고 마을 앞에 선다. 이제는 어머니 옆에 예전에 어머니를 가르쳐달라 찾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소고를 들고 나란히 선다. 굵은 손끝이 첫 박을 울리면, 오래전 어머니를 비웃던 마을 어른들도 이제는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낸다. 성별도, 장애도, 30년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. 그리고 그 30년은, 다음 세대의 손끝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.

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신다. “내가 처음 상쇠를 잡았을 때는 그 자리에 여자는 나 하나였다. 근데 이제는 저 아이가 있지 않느냐.” 누군가 처음 걸어난 자리는 길이 아니었다. 하지만 굵은 손끝이 30년을 두드리자, 그 자리는 어느새 다음 사람이 망설임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었다. 성별이 자리를 정하던 시대는 어머니의 뿡과리 소리에 묻혀 조금씩 저물고